

[별첨]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2026. 2.

공정거래위원회

1. 기업결합 심사 전체 동향

□ 공정위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으며, 이는 결합 금액으로는 총 358.3조 원에 해당한다.

* 주식취득금액, 영업양수금액, 합병금액 등을 의미(「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분석 기간 및 대상) '25.1.1.~12.31. 기간 중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 '25년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 건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기간 내에 처리된 건을 의미함(25년 이전에 신고되어 '25년 처리된 건 포함)

○ 2024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208건 감소(798 → 590, △26.1%)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82조 원 증가하였다(276.3→358.3, +29.7%)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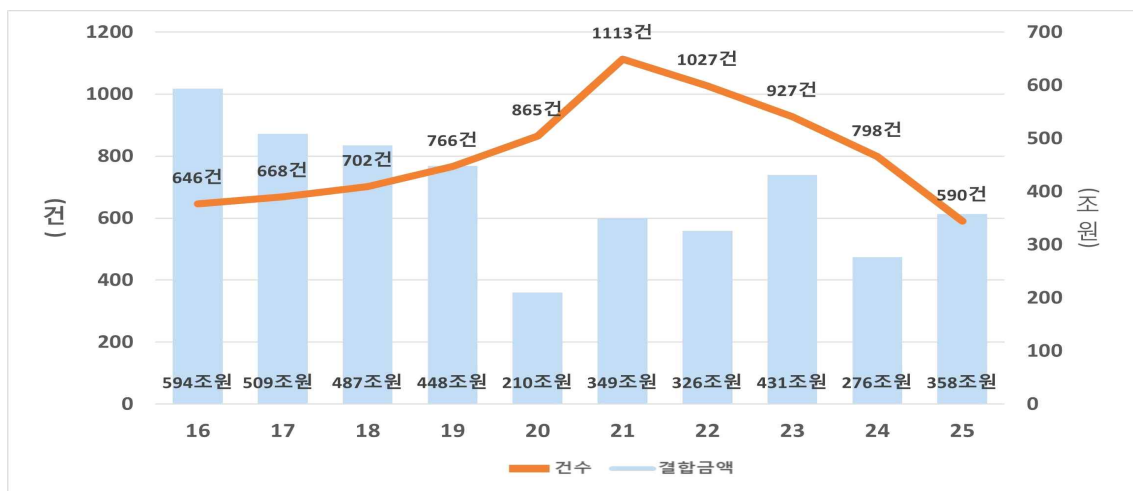
□ 2025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의 감소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축소 및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 기업결합 금액 증가는 Synopsys의 Ansys 인수(50조 원), Mars의 Kellanova 인수(49조 원) 등 외국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의 경우 외국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 1·2위 금액은 각각 24조, 23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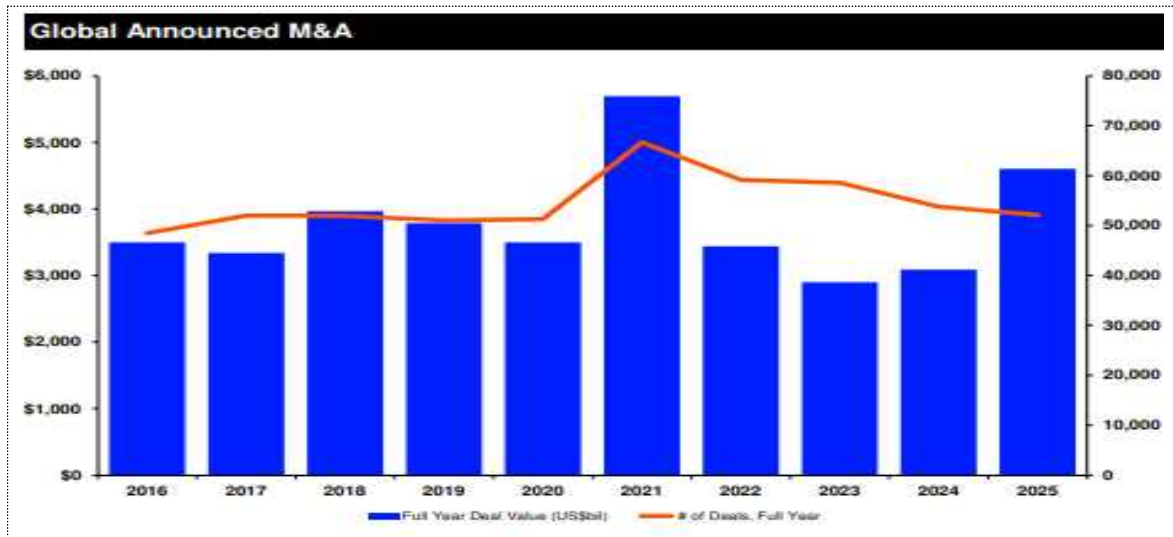
【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결합금액 (2016~2025년) 】



- 전세계적으로도 M&A 건수는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결합 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 53,789 → 52,104 (△3%) (규모) \$3,186B → \$4,602B (+49%)

【 연도별 전세계 기업결합 건수 및 결합금액 (2016~2025) 】



※ 출처: 런던증권거래소(LSEG) 그룹, "Global Mergers & Acquisitions Review : Full year 2025"

2. 주체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국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2025년도 주체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결합금액 】

(단위: 건, 조 원, %)

취득회사 \ 피취득회사		국내기업		외국기업		합 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국내기업		396 (67.1)	49.8 (13.9)	20 (3.4)	2.6 (0.7)	416 (70.5)	52.4 (14.6)
	대기업집단	133 (22.5)	21.3 (5.9)	4 (0.7)	0.2 (0.1)	137 (24.7)	21.5 (6)
외국기업		43 (7.3)	10.8 (3)	131 (22.2)	295.1 (82.4)	174 (29.5)	305.9 (85.4)
합계		439 (74.4)	60.6 (16.9)	151 (25.6)	211.5 (83.1)	590 (100.0)	35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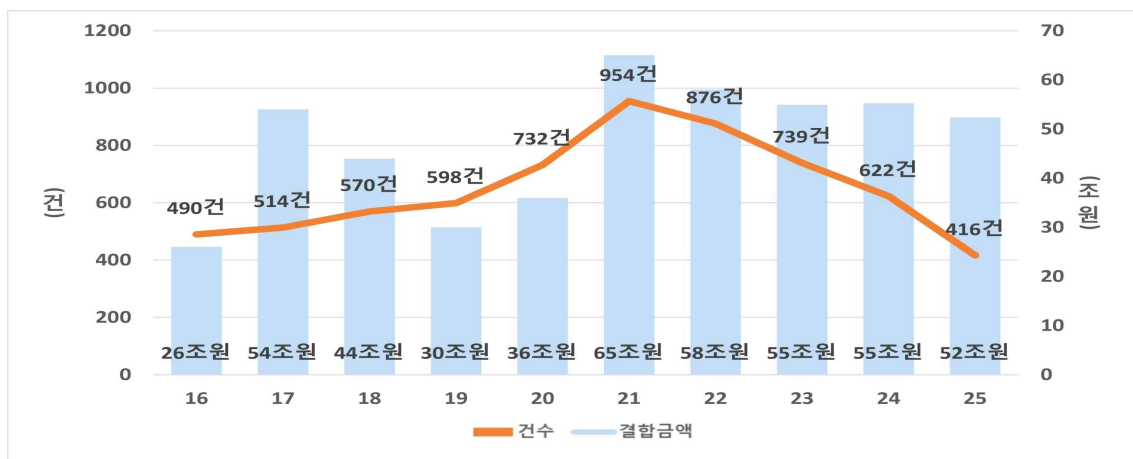
가.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견·중소기업 등 모든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을 의미

□ 2025년도 전체 기업결합 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416건, 기업결합 금액은 52.4조 원으로 나타났다.

○ 2024년도 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206건 감소(622 → 416, △33.2%) 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2.8조 원 감소(55.2 → 52.4, △5%)하였다.

【 연도별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 및 결합금액 (2016~2025년) 】



□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396건으로 전년 대비 213건 감소(609 → 396, △35%)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49.7조 원으로 4.6조 원 감소(54.3 → 49.7, △8.4%)하였다.

○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Out-Bound M&A) 건수는 20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13 → 20, +53.8%)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원 증가(0.9 → 2.6, +188.9%)하였다.

* 포스코-Xinheng metal(인니), HS효성첨단소재-Extra Mile(벨기에), 동아에스티-ITO(일본)

□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104건 감소*(169 → 65, △61.5%)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13.3조 원 감소(24.1 → 10.8, △55.2%)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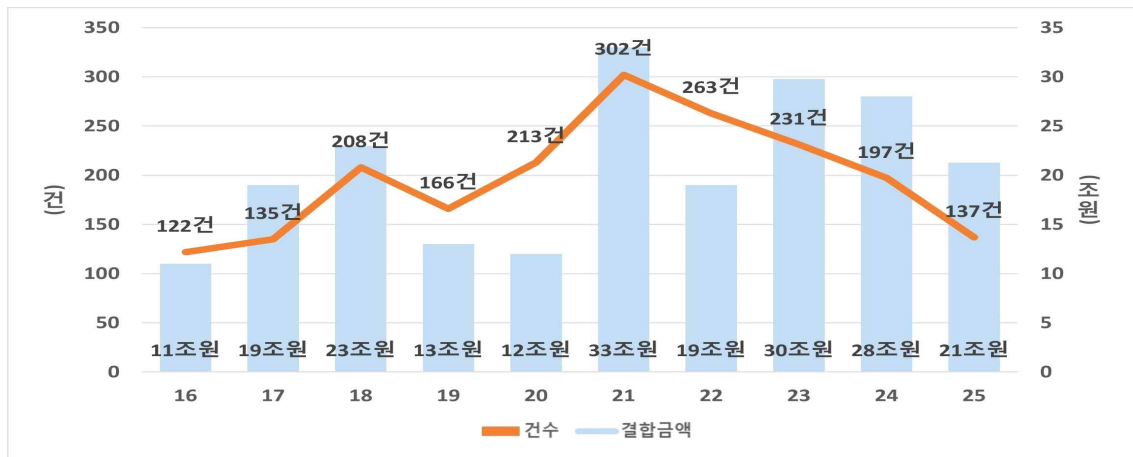
*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가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24.8월~)된 영향도 있음

○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102건 감소(453 → 351, △22.5%) 하였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10.6조 원 증가(31.0 → 41.6, +34.2%)하였다.

나.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37건으로 국내 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의 32.9%를 차지하였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21.5조 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의 41%에 해당한다.
- 2024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60건 감소(197→137, △30.5%)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6.5조 원 감소(28→21.5, △23.2%)하였다.

【 연도별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 및 결합금액 (2016~2025년) 】



-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은 34건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24.8%를 차지하였고, 비계열사에 대한 결합은 103건으로 75.2%를 차지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에스케이」(12건)이었고, 「태광」(8건), 「한화」(7건)가 그 뒤를 이었다.
-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할 경우 「에스케이」·「태광」(각 7건), 「한화」(6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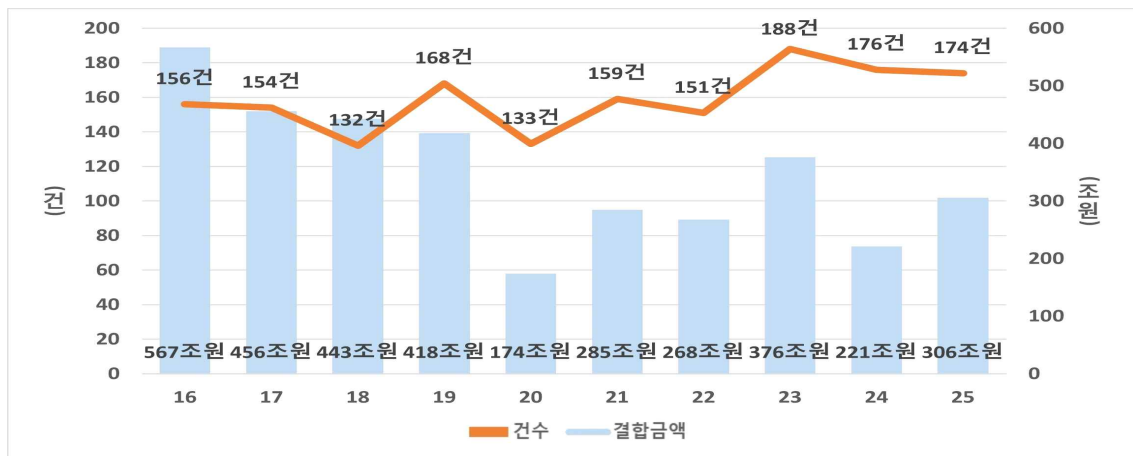
계열사 간 기업결합 포함		
순위	집단명	건수
1	에스케이	12
2	태광	8
3	한화	7
4	신세계/유진/현대자동차	4
7	삼성 등 9개사	3

계열사 간 기업결합 제외		
순위	집단명	건수
1	에스케이/태광	7
3	한화	6
4	유진	4
5	삼성 등 5개사	3
10	농심 등 10개사	2

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2025년 전체 기업결합 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74건, 기업결합 금액은 305.9조 원으로 나타났다.
- 2024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2건 감소(176 → 174, △1.1%)하였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크게(84.8조 원) 증가(221.1 → 305.9, +38.4%)하였다.

【 연도별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 및 결합금액 (2016~2025년) 】



- 신고회사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40건), 일본(28건), 싱가포르(16건)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이 이루어졌다.

【 2025년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국적별 건수 (상위 10개국) 】

순위	국가명	건수	순위	국가명	건수
1	미국	40	5	사우디아라비아	8
2	일본	28	6	독일	7
3	싱가포르	16	7	네덜란드/룩셈부르크/중국	5
4	영국	10	10	프랑스	4

-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에 해당하는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4건 증가(127 → 131, +3.1%)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84.4조 원 증가(210.7 → 295.1, +40.1%)하였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공정거래법 제3조)

□ 한편,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In-Bound M&A) 건수는 전년 대비 6건 감소(49→43, △12.2%)한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0.4조 원 증가(10.4 → 10.8, +2.8%)하였다.

○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주요 국적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이었다.

* 미국(9), 일본(5), 싱가포르프랑스(4), 몰타(3),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대만·케이만·홍콩(2) 등

3. 업종별 기업결합 심사 동향

□ 피취득회사의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223건으로 37.8%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367건으로 62.2%를 차지하였다.

○ 2024년 대비 제조업은 78건 감소(301 → 223, △25.9%), 서비스업은 130건 감소(497 → 367, △26.2%) 하였다.

가. 제조업 기업결합 동향

□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4→64, △31.9%), 기계금속(92→60, △34.8%), 석유화학의약(71→55, △22.5%), 식음료(16→13, △18.7%)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하였다.

○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가치사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로봇** 관련 기업결합이 발생하였다.

* (반도체) 한앤코32호 - 에스케이엔펠스 영업양수, 리제닉스-제이쓰리 주식취득, 티케이지태광 - 솔믹스 주식취득, 원익엠엔에이 - 아이엠테크놀로지 주식취득

** (로봇)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취득, 베어로보틱스코리아-엘지전자 영업양수

○ 석유화학의약 분야에서는 K-컬처(뷰티) 관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결합(11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 L'ORÉAL-고운세상코스메틱 주식취득, 더함파트너스-구다이글로벌 주식취득 등

- 식음료 분야에서도 K-컬처(엔터테인먼트) 상품(K-pop 스타 저작권 활용)과 관련한 기업결합도 발생하였다.

* 하이브-한국야쿠르트 주식취득 건

- 비금속광물 분야에서는 2차전지 원료인 리튬, 니켈 관련 기업결합이 있었다.

* Rio Tinto-Arcadium 주식취득, OP Energy-국제전기 주식취득

【 2025년 제조업 분야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단위: 건, %)

구분	전기전자		기계금속		석유화학의약		비금속광물		식음료		기타 * 의류, 종이 등		계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건수	94	64	92	60	71	55	15	17	16	13	13	14	301	223
비중	11.8	10.8	11.5	10.2	8.9	9.3	1.9	2.9	2	2.2	1.6	2.4	37.7	37.8

□ : 2024년 대비 감소,

■ : 2024년 대비 증가

나. 서비스업 기업결합 동향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금융(165→113, △31.5%), 도소매유통(69→56, △18.8%), 정보통신방송(61→49, △19.7%), 운수물류(45→29, △35.6%), 건설(31→11, △64.5%)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하였다.

-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는 AI 가치사슬인 반도체 설계, 데이터센터, AI 솔루션, 클라우드* 등과 관련한 기업결합이 발생하였다.

* (반도체 설계) Synopsys-Ansys 주식취득 Cadence-Arm 영업양수
(데이터센터) AMD-ZT 주식취득, Qualcomm-Alphawave 주식취득
(AI 솔루션) Reliance-Meta 회사설립, SK텔레콤-SoftBank 회사설립
(클라우드) 엘엑스인터내셔널-비에스지파트너스 주식취득

- 또한 이커머스, OTT*와 관련된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사·인접 업종 간 기업결합 움직임도 나타났다.

* (이커머스) 지마켓-AliExpress 회사설립, CJ대한통운-SSG 영업양수 등
(OTT)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 도소매유통이나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글로벌 유통업, 미용 서비스업 등 K-컬처(뷰티)와 관련된 기업결합이 발생하였다.

* (화장품 글로벌 유통) 티엠뷰티-크레이버코퍼레이션 주식취득 등
(미용) Blackstone-준오·준오뷰티 주식취득

- 음식숙박레저 분야에서는 호텔, 콘도 운영업과 관련된 기업결합이 주를 이뤘다.

* 에스에스호텔 - 퍼스트캐빈 회사설립, 파라다이스-칼호텔 주식취득, 에이치엘제5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소노인터내셔널 영업양수 등

【 2025년 서비스업 분야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단위: 건, %)

구분	금융		도소매 유통		정보통신 방송		운수물류		건설		음식숙박 레저		기타		계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건수	165	113	69	56	61	49	45	29	31	11	4	10	122	99	497	367
비중	20.7	19.1	8.6	9.5	7.6	8.3	5.6	4.9	3.9	1.9	0.5	1.7	15.3	16.8	62.3	62.2

: 2024년 대비 감소,

: 2024년 대비 증가

4. 기업결합 수단별 · 형태별 심사 동향

가. 기업결합 수단별 동향

- 기업결합 수단별로 보면, 주식취득(321건, 54.4%)이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98건, 16.6%), 합작회사설립(96건, 16.3%), 임원겸임(38건, 6.4%), 합병(37건, 6.3%) 순이었다.

- 주식취득 및 영업양수의 경우 전년 대비 건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합작회사 설립·임원겸임 및 합병은 전년 대비 건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 합작회사 설립, 임원겸임, 합병의 전년대비 감소는 '24.8월 신고면제 대상 확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PEF 설립, 1/3미만 임원겸임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 2025년도 기업결합 수단별 건수 및 비중 】

(단위: 건, %)

구분		주식취득		영업양수		합작회사설립		임원겸임		합병		합 계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계열	건수	1	1	44	30	3	0	0	2	126	35	174	68
	비중	0.1	0.2	5.5	5.1	0.4	0	0	0.3	15.8	5.9	21.8	11.5
비계열	건수	314	320	49	68	152	96	104	36	5	2	624	522
	비중	39.3	54.2	6.1	11.5	19.0	16.3	13.0	6.1	0.6	0.3	78.2	88.5
전체	건수	315	321	93	98	155	96	104	38	131	37	798	590
	비중	39.5	54.4	11.7	16.6	19.4	16.3	13.0	6.4	16.4	6.3	100	100

□ : 2024년 대비 감소,

□ : 2024년 대비 증가

※ 계열사 간 주식거래, 임원겸임이나 계열사만 참여하는 합작회사 설립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님

나. 기업결합 형태별 동향

- 기업결합 형태별로 보면, 전체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평·혼합결합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형태별 비중은 전년과 유사하였다.
- 기업결합 건수는 혼합결합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평결합(243건), 수직결합(66건) 순이었다.

【 2025년도 기업결합 형태별 건수 및 비중 】

(단위: 건, %)

구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합 계	
		'24	'25	'24	'25	'24	'25	'24	'25
계열	건수	91	35	8	4	75	29	174	68
	비중	11.4	5.9	1.0	0.7	9.4	4.9	21.8	11.5
비계열	건수	219	208	58	62	347	252	624	522
	비중	27.4	35.3	7.3	10.5	43.5	42.7	78.2	88.5
전체	건수	310	243	66	66	422	281	798	590
	비중	38.8	41.2	8.3	11.2	52.9	47.6	100	100

□ : 2024년 대비 감소,

□ : 2024년 대비 증가

※ 기업결합의 형태

- 수평결합: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수직결합: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혼합결합: 수평·수직결합 외의 기업결합

5. 기업결합 규정 위반 동향

□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층심사를 진행한 건은 총 50건*이었으며,

* 심층심사 건수(금액) : ⁽²⁴⁾36건(31조 원) → ⁽²⁵⁾50건(97조 원)

○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 ① [Synopsys-Ansys] Synopsys, Inc.의 Ansys, Inc. 주식취득 건
② [티빙-웨이브] (주)씨제이이엔엠의 콘텐츠웨이브(주) 임원겸임 건
③ [지마켓-AliExpress] 아폴로코리아(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 특히, 지마켓-AliExpress 기업결합 건은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쏠림현상, 고착효과,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 우려를 검토·조치한 첫 기업결합 사례인 점에서 의의가 크다.

□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의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썼다.

○ 특히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역대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였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이행강제금 부과 - 대한항공 58.8억 원, 아시아나항공 121억 원, 5.8억 원) (공정위 보도자료, '25.8.2., '25.12.22.)

- 대한항공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의무 및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29건(과태료 부과 총 177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상당히 감소(42건 → 29건, △30.9%)하였다.

*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후신고 대상으로서 법정 신고기한(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건

6.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세계적으로 M&A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기업결합이 활발한 추세가 나타났다.
 - 한국의 경우에도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세계적 추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 * 심층심사(간이심사대상 및 시장집중도 분석상 경쟁제한 없음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제외한 심사) 건 : ⁽²⁴⁾36건(31조 원) → ⁽²⁵⁾50건(97조 원), 전년 대비 39%(213%) 증가
- 기업결합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건을 취득회사 국적별로 살펴보면,
 - 외국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반도체 분야(Synopsys-Ansys)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결합이 이루어졌고, 모두 외국회사간 기업결합에 해당하였다.
 - 국내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사업재편 성격의 계열사 간 합병 건(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의 규모가 가장 컸고,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력 확보(지마켓-AliExpress)를 위한 기업결합이 뒤를 이었다.

【 2025년 외국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중 상위 10건) 】

순위	기업결합 건	기업결합금액	비고
1	Synopsys(미국)-Ansys(미국) 주식취득 ※ 시정조치 부과	50조 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2	Mars(미국)-Kellanova(미국) 주식취득	49.1조 원	곡물 가공 식품
3	Water(미국)-Augusta Spinco(미국) 주식취득	24조 원	체외진단 의료기기
4	Olympus Water US(미국)-NCH(미국) 주식취득	17조 원	수처리 화학제품

5	ADNOC(UAE)-Covestro(독일) 주식취득	16.9조 원	석유화학 제품
6	Siemens Industry Software(독일)- Altair Engineering(미국) 주식취득	13.8조 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7	MEGA BidCo(미국)-ESR Group(홍콩) 주식취득	9.4조 원	물류 부동산 투자
8	Rio Tinto BM(영국)-Arcadium Lithium (아일랜드)주식취득	9조 원	리튬 생산
9	Mercedes-Benz AG(독일)-Mercedes-Benz Mobility AG(독일) 합병	8.8조	자동차 리스
10	Project Aurora Bidc(미국)-Spectris(영국) 주식취득	7.8조 원	분석 장비, 테스트 장비

【 2025년 국내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중 상위 10건) 】

순위	기업결합 건	기업결합금액	비고
1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	4.4조 원	건설기계
2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회사설립 ※ 시정조치 부과	3조 원	이커머스
3	한앤코30호-에스케이스페셜티 합병	1.3조 원	특수가스
4	코리아워터솔루션-엘지화학 영업양수	1.4조 원	수처리 화학제품
5	크리에이트자산운용-비에프로지스틱스 영업양수	1조 원	물류 부동산
6	더블유제이라이프-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0.9조 원	상조
7	우리집에프앤비(한화)-아워홈 주식취득	0.9조 원	단체급식
8	국양로지텍-부산그린파워 주식취득	0.8조 원	폐기물 처리
9	대신밸류리츠-대신증권 영업양수	0.7조 원	영업용 부동산
10	동국제강-삼성생명보험 영업양수	0.6조 원	영업용 부동산

※ 신고회사 제출 정보 기준(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제외)

□ 2025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은 ① AI 가치사슬과
연관된 기업결합, ② K-컬처 확산과 관련된 기업결합, ③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한 점으로 볼 수 있다.

① AI 가치사슬

- (반도체·데이터센터)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AI 산업 가치사슬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솔루션, 클라우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 반도체 설계(Synopsys-Ansys, Cadence-Arm), 데이터센터(AMD-ZT, Qualcomm-Alphawave), AI 솔루션(Reliance-Meta, SK텔레콤-SoftBank), 클라우드(엘엑스인터내셔널-비에스지파트너스) 관련 결합
- (로봇) 피지컬 AI와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의 로봇 사업 강화(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베어로보틱스-LG전자) 관련 결합 움직임이 나타났다.

② K-컬처

- 최근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이른바 'K-컬처' 관련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 다수 이루어졌다.
 - (K-엔터) K-pop 스타의 저작권을 활용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결합(하이브-한국야쿠르트), 국내 모바일 게임의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111퍼센트-Habby) 관련 결합
 - (K-뷰티) '닥터지', '스킨푸드', '독도 토너' 등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L'ORÉAL-고운세상코스메틱, 구다이글로벌-스킨푸드, 구다이글로벌-서린컴퍼니), 화장품 용기·원료(Silver Investment-시그니처코리아, 태경에코-케이퍼티) 및 미용 서비스(Blackstone-준오·준오뷰티) 관련 결합

③ 경쟁력 확보

- (이커머스) 국내-해외 플랫폼 결합(지마켓-Aliexpress), 유통·물류시장과의 결합(CJ대한통운-SSG), 희생법인의 소유주 변동(오아시스-티몬) 등 여러 형태의 기업결합이 나타났다.
- (OTT)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OTT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사 간(티빙-웨이브) 결합이 발생하였다.

7. 향후 계획

- 2026년 공정위는 시장의 혁신·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 아울러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핵심인력 흡수)의 기업결합에 대하여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 시정조치 이행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